

13. 구정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총무과)

질문의원

김복동 의원(재무건설위원장 : 종로5,6가동)
조기태 의원(재무건설위원회의간사: 청운,효자동)

【질문】

○ 시·자치구간 인사교류 대상자의 본인희망 및 강제전출 여부?

【답변】

- 이번 시·자치구간 인사교류시 우리 구의 인사교류 대상자는 총 44명(본인희망자 23명, 전출내신자 21명)입니다.
- 위 전출내신자 21명은 불평 불만과 무사안일한 자세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동료직원과의 불화, 근무태도 불량 등 조직에 누를 끼치는 행위를 일삼는다고 판단되어 조직운영상 부득이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출신지역을 차별하여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역별로 다소 편차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하겠으며 향후에는 본인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전출내신 인사는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질문의원

조 기 태 의원(재무건설 간사, 청운 효자동)

【질 문】

대학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따른 문제점

【답 변】

존경하는 조기태의원님께서 대학로에 설치한 중앙분리대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신 내용은

- ①시급하다는 이유로 경쟁입찰을 하지 않았는데 서울시 방침 여부 및 서울시와 협의 여부
- ②조형물이 인조대리석인지, 공사를 한사람이 누구인지
- ③교통시설을 연간단가업체에서 발주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적법성 여부
- ④시급하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비싸게 지출하지 않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7월 1일부터 착수하기 위하여 대학로, 창경궁로의 양방향통행을 일방통행으로 교통체계를 변경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서울시 대중교통보좌관 음성직 씨가 구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일방통행으로 교통체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과 청계천 복원공사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6월 15일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서울시 임의대로 일방통행으로 변경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므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또한 서울시와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 일방통행을 양방향통행으로 변경시킴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장님께서 주재하는 관계관 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진행사항을 점검하셨습니다. 3월 20일 교통개선 종합대책 회의시 시장님께 절대공기가 최소한 115일 소요(입찰40일, 공사 75일)되므로 물리적으로 6월 15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수 없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하는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청계천복원공사 착수시기가 결정되어 교통체계개선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없으므로 시급성을 감안하여 연간단가 업체를 활용하고, 특히 중앙분리대는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미관을 최우선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수준을 향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시장님 지시에 따라 주관부서인 서울시 도심교통개선반에서는 3월 28일 기 계약된 연간단가 공사에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라는 지시공문을 구청에 시달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지시와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4월 9일부터 단가계약 업체를 활용하여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3월 20일 서울시 교통개선 종합대책 회의시 중앙분리대는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미관을 최우선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수준을 향상하라는 시장님 지시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전문가인 종로구 도시계획심의회, 홍익대학교 미술디자인 공학연구소, 환경조형물 작가의 자문을 받아 대학로의 문화지구에 걸맞은 환경친화적인 중앙분리대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당초 롤링배리어(회전방호책)를 화강석 받침석재 및 조형석으로 변경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4월~5월에 3차례 걸친 서울시 교통개선 종합회의시 시장님께서 직접 주재하신 공개 회의에서 한국큐레이터연구소가 제시한 메시지 V 안이 시 간부들의 공개토의와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5월 23일부터 석재조형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석재중앙분리대는 대학로·창경궁로 교통체계개선 사업의 일부 공정으로서 토목시공 회사에서 직접 시공하고 전문성을 감안하여 설계감리비로 한국큐레이터연구소에 1,500만원을 실비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중앙분리대는 대학로(혜화동로타리에서 이화동사거리) 810m를 설치하였으며, 주재료는 석재 받침 폭 50cm, 높이 55~65cm에 길이 2~2.5m) 및 조형석(구, 원기둥, 사각기둥, 반고리 등 20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비는 7억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전문디자인업체의 자문을 받아 한국의 오방색 색채언어 개념을 도입하여 대학로 젊음의 거리 및 문화의 거리에 어울리고 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공사비는(재료비 5억 1,500만원, 시공비 6,500만원)으로서 받침석 810m에 5억 8,000만원, 조형석 202개에 1억 4,000만원으로 대부분 자재비 및 인건비로서 공사비 절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공사 전에 의원님께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원님과 사전협의를 하는 등 행정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간략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